

- 주요 뉴스: 미국 주요 고용지표, 양호한 노동시장 재확인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 기대 약화
 - 연준의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 피력. 일부 최종금리 근접 의견도 존재
 -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 정책금리는 여름에 정점 도달 예상
 - 중국 '22년 12월 차이신 서비스 PMI, 전월비 상승했으나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통화긴축 완화 기대 감소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1.2%], 달러화 강세[+0.9%], 금리 상승[+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양호한 고용지표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이 반영
 유로 Stoxx600지수는 화학 및 보험관련주 약세 등으로 0.2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상승
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8%, 0.6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전망 강화 등이 배경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bp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73.6원, +4.2원) 0.4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1/5일	1/4일	전일대비			1/5일	1/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08.1	3,853.0	-1.16%	국채 금리 10y	미국	3.72%	3.68%	4bp
	유럽	439.33	440.19	-0.20%		독일	2.32%	2.27%	4bp
	중국	3,155.2	3,123.5	1.01%		영국	3.55%	3.49%	6bp
	일본	25,821	25,717	0.40%		CDS 5y	한국	52bp	53bp
	한국	2,264.7	2,256.0	0.38%	중국		66bp	70bp	-4bp
	달러지수	105.15	104.25	0.87%	위험 지표	EMBI+	-	383	-
유로화	1.0520	1.0604	-0.79%	VIX		22.46	22.01	2.04%	
환율	엔화	133.40	132.63	-0.58%		WTI유	73.67	72.84	1.14%
	위안화	6.8804	6.8973	0.25%		원자재	구리	383.1	374.1
	원화	1,269.4	1,271.7	0.18%	금		1,833.1	1,854.6	-1.16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요 고용지표, 양호한 노동시장 재확인.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 기대 약화

- '22년 12월 ADP 민간고용은 23.5만건 증가하여 전월(12.7만) 및 예상치(15.0만) 상회. 이는 최근 금리상승에도 노동시장이 양호한 상황임을 시사. 연말 노동지표는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높지만, 이번 결과를 고려한다면, 노동시장 내 수요가 공급에 비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
- '22년 12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감소(22.3만 → 20.4만)했으나 역사적 기준에서는 낮은 수준. 이는 노동시장 여건이 긍정적이라는 의미. 다만 연속 청구건수(169.4만건)의 경우 전주 대비 2.4만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,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 해고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
- 최근 Amazon(1.8만명), Salesforce(직원의 10%), 일부 건설 및 금융권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예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공식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.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직원 축소에 소극적임을 감안하면 금년 하반기에나 고용 관련 지표들이 나빠질 것으로 판단(ING의 James Knightley)
- 양호한 노동시장이 재확인되면서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 기대가 약화되고 고금리 지속 전망이 강화. 한편 1/6일 발표 예정인 '22년 12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감소(26만건→20만건)하나 고용 여건 관련 긍정적 신호 발신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의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 피력. 일부 최종금리 근접 의견도 존재

- 캔사스시티 연은의 조지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도달을 확신할 수 있는 신호가 발생할 때까지 긴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. 이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연방기금금리 목표는 5.0%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
-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 역시 미국 경제의 최대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준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고 주장
- 다만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최근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정도로 높다고 언급. 정책금리가 아직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, 이에 근접하고 있다고 부연

■ IMF 수석 부총재,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정점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

- 고프나스 부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통과했다고 볼 수 없으며, 연준이 물가안정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발언. 최근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서비스물가의 상승 압력이 강하다고 설명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 정책금리는 여름에 정점 도달 예상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여름에 최종금리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지만, 구체적 수준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언급. 다만 그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높은 정책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첨언

■ 중국 '22년 12월 차이신 서비스 PMI, 전월비 상승했으나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

- '22년 12월 차이신 서비스 PMI는 48을 기록하여 전월(46.7) 및 예상치(47.5) 상회.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에 따른 수요 둔화 등이 지속. 다만 일부 서비스 기업들은 향후 12개월 경제 전망 관련 긍정적 시각을 피력
- 한편 인민은행은 다시 한 번 경기부양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. 이를 위해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, 합리적 수준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방침. 또한 사재기 등 물가불안 조장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

■ 일본은행,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분기 경제전망 발표에서 연료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일 소지. 이는 최근 견조한 국내수요 및 기업들의 제품가격 인상 등을 반영. 다만 일본은행이 의미 있는 임금상승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원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간 내에 금리인상이 단행되기는 어려울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/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'22년 11월 무역수지(억달러): -615.1, 10월(-778.5), 예상치(-740.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6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쿡 이사 및 ECB 레인 이사 강연. 미국 '22년 12월 고용보고서
- 미국 '22년 12월 ISM 서비스 PMI, 유로존 '22년 12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, 과거 그린스펜과 같은 수수께끼를 고민 - 블룸버그

(The Fed Has a Greenspan Conundrum on Its Hands)

- 연준이 정책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던 '04~'06년 당시 연준의 그린스펜 의장은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것을 보며 수수께끼라고 평가
- 최근 연준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고민. 연준은 시장이 자신들의 물가안정 의지를 믿지 않고 오히려 금리인하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인식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은 물가가 완전히 하락하는 것에 반응
- 만일 연준이 금융여건 완화 현상과 시장의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과도한 긴축에 나설 경우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소지

■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, 공식 통계치보다 크게 하락했을 가능성 - WSJ

(What if Inflation Suddenly Dropped and No One Noticed?)

- 미국 '22년 11월 소비자물가(CPI) 및 개인소비지출물가(PCEPI)의 연간 상승률은 각각 7.1%, 5.5%로 최근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인식. 그러나 '22년 하반기 실제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물가목표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
- 이는 연간 물가상승률 계산 과정이 최근의 급격한 물가변동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. '22년 11월 CPI 상승률(7.1%)은 '22년 상반기(10.6%)와 하반기(2.5%) 내용을 합산한 결과. PCEPI(5.5%)도 이와 유사('22년 상반기 7.8%, 하반기 2.4%)
- 다만 최근 5개월 간 근원 CPI 및 PCEPI의 상승률(각각 4.7%, 3.7%)이 여전히 높아 고물가 통제 노력은 지속될 필요. 하반기의 급격한 물가하락은 통화긴축 보다는 공급망 차질 개선이 주요 요인. 공급망 혼란, 에너지 공급난 재현 가능성이 낮으며 향후 연준의 긴축정책 노력 고려 시 고물가 통제 관련 전망은 긍정적

■ 미국의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, 소득불평등 완화 등에는 효과적 - Financial Times

(When wage inflation is good for you)

- 통화 당국이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긴축기조를 강화할 수 있지만, 임금상승의 가속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면, 이는 경제에 플러스 요소. MIT 연구진에 따르면,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 계층 간 임금 격차가 축소
- 더 많은 일자리 이동이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한다면, 이는 물가상승 압력 완화 요인으로 작용. 통화당국은 이를 반영한 향후 정책 결정이 요구

■ **금융시장 투자자, 이전과 다른 경제 및 금융환경을 대비할 필요 - Financial Times**
(Investors should act as if the Fed put is no longer in place)

- 최근 시장에서는 금년 중 ① 미국 경기침체 발생 ② 빠른 속도의 물가하락 ③ 연준의 통화긴축 중단 ④ 주가 반등 등이 연이어 발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컨센서스가 집중. 그러나 과거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
- 우선 미국 경제가 빠른 침체와 빠른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장기간 약한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며, 물가도 임금 상승 혹은 친환경 경제 전환 등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소지. 이 경우 연준도 쉽게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
- 최근 투자자들은 저조한 성장의 장기화, 고물가 지속, 부진한 주가 등의 위험에 직면. 이에 연준이 금리인하 등 Fed put*을 통해 증시를 부양할 것이라는 희망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절한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관리가 중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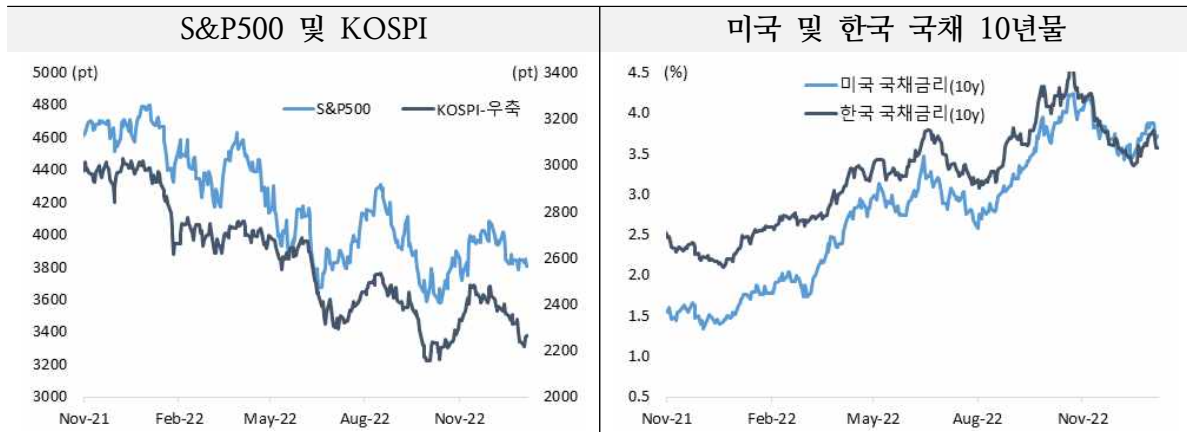
*Fed put: 연준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. 구체적으로 금리인상 지연, 금리인하, 양적완화, 시장 친화적 발언 등이 이에 해당

■ **미국 통화정책, 경제지표 기준으로는 과도한 매파 기조로 판단 - 블룸버그**
(No Fed Cut? Markets Think It's More Than a Matter of Minutes)

■ **녹색 보호무역주의·공급망 탈중국화, 주요국에 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 - WSI**
(Greener, More Secure Supply Chains Won't Come Cheap)

■ **국제 원유시장의 공급과잉, 중국 경제활동 재개 불구 글로벌 성장둔화 등에 기인 - 블룸버그**
(Why China's Reopening Isn't Boosting Global Oil Markets Yet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